



▲ 동용광 소장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무재해 준공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현장

— 대우건설 안성도로확장공사 —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기지개를 펴고, 차가운 나뭇가지에 꽃눈이 돌아나라고 재촉하는 단비에 얼었던 땅도 녹는다.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

오늘 찾은 곳도 봄의 기운과 같은 힘이 현장 곳곳에서 느껴진다.

국도 23호선 및 국지도 70호선 중 안성시 서운면에서 대덕면간 4차로 도로를 신설 및 확장공사(동용광 소장)가 한창인 대우건설에서 무재해 준공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

대우건설은 이미 안전관리 국제 규격인 OSHAS 18001을 인증받는 등 전사적으로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현장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행의 안전, 模範의 안전, 先取의 안전」이라는 소신을 갖고 무재해 준공을 위해 도약하는 안성도로확장공사 현장의 안전 의지를 들어본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안전

동용광 소장은 안전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한다.

안전은 맹목적이고 강압적이기 보다 지도·조언 차원에서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장 근로자와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는 주문을 자주한다.

“안전은 따라주는 현장 근로자가 없으면, 말뿐인 안전이 된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안전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전개하는 안전활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고 따라 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고 동용광 소장은 강조한다.

현장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리면서 오늘도 무사히 현장 가족들을 가정의 품으로 보낸다.

이렇듯 직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용광 소장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마음도 어루만져 준다.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안전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다는 동용광 소장은 안전관리자는 외로운 보직이라고 이해한다. 안전은 안전관리자 혼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전부터 안전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안전관리자는 외롭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부분 중 공정회의시 시공위주의 회의가 진행되다보면 안전은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는 절대 위축되지 말라고 한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안전의 전문가로서 공정상 적절한 안전활동과 기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한다. 안전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것을 당부한다.

아직도 안전관리자에 있어 권한이 미비한 것도 외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이나 동용광 소장은 안전과 시공에 있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안전 확보를 선행하여 안전관리자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시공과 안전을 선택해야 할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이 현장에서는 안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예지 할 수 없는 안전사고는 없다

동용광 소장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안전의 근본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모든 건축물은 사람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지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고, 만들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도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모든 사고는 예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용광 소장은 23년 동안 국내외에서 쌓아온 경험을 직원에게 전파하여 무재해 준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도 밝힌다.


지금 현재 착공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다공정이 없어 힘들었던 점은 없었으나, 현장 특성상 기존에 설치된 고압전선 및 많은 차량소통에 따른 악조건 환경과 앞으로 어려운 공정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그 중 토공과 중기작업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중기작업시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비기사면허증 및 중기장비에 관한 정보와 보험 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 신호수를 많이 배치하고 음성안내·경보장치 등도 함께 도입한다.

무재해 현장으로 우뚝

안전사고는 위험공정에서보다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안전을 등한시 할 때 또한 사고는 발생한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서는 안전을 생활화하여 빈틈 없는 안전 확보를 전개한다.

앞으로 무재해 준공을 떠나 모든 현장에서 단한건의 사고 없는 무재해 현장을 이룩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